



## 나의 집, 나의 일

최민희 /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 저자

10년만에 몸살을 앓았다. 거의 일주일 가량 앓고 지내는 것 같다. 아파도 온전하게 아——프기만 할 수가 없다. 늦동이 딸 윤서가 옷깃을 헤집고 손을 넣어 ‘찌찌’를 조물락 거리다 간 옷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뺀다. 아픈중에도 젓먹는 딸이 대견해 혼자 피식 웃고 만다.

나는 바쁜 엄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에 자연육아를 하는 부모모임 수수팔떡의 책임자이며 한 남자의 아내인데다가 14살 사내아이의 엄마다. 마흔에 늦동이를 낳아 지금까지 젓을 먹고 있다. 사람들은 “늙은 젓 먹이면 아기가 고집이 세진다” “영양가 하나도 없는 젓 먹이면 안 크다” “두 살 지나서 젓먹으면 말이 늦다” 등등의 이유로 끊으라고 성화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하나. 아기가 원하기 때문이다. 낮에 아기와 있어 주지 못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젓이라도 먹고 싶다. 윤서는 고집은 세지만 쑥쑥 잘 크고 말은 매우 빠른 편이다. 고집 센 것은 젓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닮은 때문이 아닐까.

보통 일하는 여성은 가사일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내 주변의 일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열심히 일하는 여성일수록 더욱더 가정을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다.

나는 그중에서도 좀 별난 축에 속한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귀가해 버린다.

귀가시간이 늦어지면 핸드폰이 연신 울린다. 아들과 친정아버지, 남편이 번갈아 전화를 한다. 요즘은 지정된 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되므로 윤서까지 가세해서 전화를 해대는 통에 사람이 배겨나

질 못한다. 가끔 사람들은 내게 “숨막히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그런 뉘달이 달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뉘달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생활을 절제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나는 간혹 내뭍이 3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몸은 하나이므로 만일 내가 남들 수준의 다소 ‘방탕한’ 생활까지 한다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낮에 민언련 사무실에서 돌아오면 어떤날은 새벽 3,4시 까지 수수팔떡 싸이트에 들어가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견디다 못한 남편은 “그만하라”고 성화다. 내가 깨어 있어 같이 잠을 못잔 남편도 이번에 호되게 몸살을 앓았다. 컴퓨터를 끄라고 말해도 내가 듣지 않자 남편은 “윤서가 잘 자나...” 하고 나와 윤서가 자는 방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으왕.. 엄마, 엄마, 찌찌..” 윤서 우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남편이 아이를 꼬집어 깨운 것이다. 그날 이후 “윤서 꼬집는다.”는 말은 남편의 무기가 되었다.

일이라는 것이 매일 잘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지칠 때가 있다. 웃어른과 마찰이 있기도 하고 힘 빠지는 논쟁에 지치기도 한다. 이런 순간에도 어김없이 핸드폰이 울린다. 기진맥진한 내 귀로 아들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오늘 4시까지 와. 꼭 올거지?” 나는 시계를 본다. 이미 5시가 넘고 있었다. 다시 아들의 목소리. “히히히. 엄마 지금 5시지 봐줄게. 7시까지 와” 나는 아들의 포로가 되어 꼬옥 7시에 맞추어 집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씩씩하게 ‘일터’로 향한다.